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하느님의 어머니로 불리는 일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경향은 교회의 초기부터 끈질기게 이어져 왔습니다. (1요한 4,3 참조).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려 했던 극단적 교리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기에 몸은 환상에 불과하며 십자가 위의 고통은 성자가 아닌 인간 예수만 당했을 뿐이라는 영지주의를 탄생시키기까지도 했지요. 교회는 이에 맞서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강생 신비가 성모님의 모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진리를 천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성이 마리아의 모성에서 비롯되었으며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한 마리아의 칭호임을 밝힙니다. 교회는 “마리아는 아들의 공로로 인하여 뛰어나게 구원되고 아들과 불가분의 관계로 긴밀히 결합되었으며, 천주 성자의 모친이 되는 직무와 품위를 갖추시었다”는 진리에 입각하여 예수님께서 완전한 천주성과 완전한 인간성을 소유한 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무님은 인간 예수님을 낳으신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십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 어머니의 품위를 높여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분의 은총의 결과에 탄지를 걸 이유가 무엇일지요?

『소곤소곤 이런 질문해도 되나요?』, p.14~15, 장재봉 신부 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samok.cathms.kr>

| 어린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라 |

(시편 131,1-3)

시작 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35장 “어린이처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저희 안에 함께 머물러 주시고,
저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고
제 눈은 높지 않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따라나서지도
주제님께 놀라운 것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 2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가다듬고 가라앉혔습니다.
어미 품에 안긴 젖 떼 아기 같습니다.
저에게 제 영혼은 젖 떼 아기 같습니다.
- 3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맡겼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은 의심하지 않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속이는 일은 누워서 떡먹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아이들은 쉽게 믿습니다.

아이들은 잘 속지만 사실은 잘 속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키우는 ‘베로’라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사모예드(생김새는 귀여운데 덩치가 큼)라는 종인데 사람을 무척 좋아하는 견종입니다. 가끔 베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어른들과 아이들의 반응이 천지 차이입니다. 아이들은 먼저 다가와서 쓰다듬고 만지고 안고, 저는 안중에도 없이 베로를 둘러싸버립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경계하며 굳은 표정으로 주시합니다.(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왜 입마개를 안 했냐, 멧돼지 같다, 여름에 덥겠다, 물지 않느냐, 사료 많이 먹겠다 등 경험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를 조금 느낄 수 있는 저의 일상입니다.

어린이들의 얼굴을 보세요. 삶에 지친 굳은 얼굴이 아니라 생기 넘치는 얼굴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은 얼굴이 되어가는 어른들입니다. 때로는 밝고 기쁘게 어린이들처럼 웃으세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도 굳어져 울지 않는 어른들이 많은데 아이들처럼 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을 느끼며 울고, 슬픔을 나누며 울고, 정의롭지 못함에 분노하고 슬퍼하며

울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처럼 꾸밈없이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아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에 우리 삶을 풀어가는 열쇠가 있지 않을까요.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탁 토의

진행자 • 지날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35장 “어린이처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공동체 |

- 완월동본당 지역부장 박혜옥 레지나 -

무학산 자락 가까이에 자리한 완월동본당은 현재 성지여자고등학교 사택을 임시성당으로 사용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1975년 12월 현 위치에 완월동본당이 봉헌되었고, 이후 증축공사를 하여 2007년 1월 새 성전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성당 마당에 자리하고 있는 오래된 왕벚꽃나무는 올해로 설립 117주년을 맞이하는 본당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완월동본당 소공동체는 7개 구역 26개 반으로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7~8명이 소공동체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택지가 많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전입보다 전출이 늘고 있어 소공동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소공동체장 월례회에서는 한 달 동안의 소공동체 활동을 확인하고 의논합니다. 가정과 병원 봉성체 환우의 근황을 전하고 레지오 팀에도 공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돌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공동체의 아픈 분들을 방문하여 기도해드리고 돌보아 드리는 것은 소공동체의 주된 활동입니다.

1구역 3반은 창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부부가 전입 후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낯선 환경에 놓여 냉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원들은 가게에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매월 발행되는 매일 미사와 공동체소식을 전해 주며 열심히 회두중입니다. 3구역 6반은 아파트 지역으로

젊은 교우가 많습니다. 신영세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신심단체에 가입하여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대부분 직장인이라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가끔 퇴근 후 시간에 친교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신영세자들이 발걸음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열심히 활동했던 자매님들이 모인 6구역 4반은 반원 중 젊은 형제분이 암 투병 중이라 그분과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른 봄, 가지치기를 하여 흥해 보인다고 싶었던 왕벚꽃나무는 가지에 새 잎을 달고 꽃잔치를 합니다. 신록의 계절이 오면 어김없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동체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으니 계절이 바뀔 적마다 노환으로 성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당 마당의 왕벚꽃나무처럼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여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으로 다시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는 완월동본당 공동체에 주님께 서 자비와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청해봅니다.

